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3월 15일**

바벨론의 운명 사47:1-11

1. 바벨론의 운명

1)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 가기 100년 이상 전의 기록이므로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 나서 내 백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네게 넘겨 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내가 준 네 능력에 취하여 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사단과 같습니다.

2) 바벨론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너무 심하게 했다며 벌을 주는 형식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절은 바벨론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닥치는 대로 했다는 뜻이며 그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 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교만과 함께 내 백성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은 네가 아무리 주술과 주문을 동원해도 절대로 내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한 날에 모든 자녀를 잃고 남편도 잃어서 과부가 되는 것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3) 11절은 재앙이 와도 원인을 모를 것이며 손해가 와도 물리칠 힘이 없을 것이고 파멸이 홀연히 오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재앙에 대하여는 네게는 답이 없고 당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 내가 재앙을 네게 내린다고 하십니다

4) 정리를 해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하게 했고 둘 째는 나 뿐이라는 등의 생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은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바벨론도 제법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의 기록이 많습니다. 창12장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 갔을 때도 잘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애굽 왕을 치셨습니다.

5) 왜 하나님은 세상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까요.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이 애굽 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애굽 왕이 잘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불신앙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나 윤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이 많습니다.

6)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일은 없습니다. 많이 살리면 많이 살릴수록 더 합리적입니다. 복음 외에 인간을 살릴 길은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가 가장 귀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7)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여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실 일을 생각하면 바벨론 같은 것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힘을 주었더니 바벨론이 그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룬 것입니다.

8)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우리 보다 더 귀한 존재는 하나님 눈에 없습니다. 삼상4-6장을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의 아들 제사장 두 명도 그 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았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입니다.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언약궤 앞에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있었습니다.

9)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내려서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겼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라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여 돌려 보내기로 하고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10)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으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할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오히려 나라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목도 손도 다 잘리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11)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다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죄를 묻는 것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만 죽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나의 언약궤인데 왜 너희는 자꾸 우상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내 언약 안에 살면 내가 너희의 대적을 죽여 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2) 그래서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의 왕이나 너희에게 내 백성을 혹 맡겨도 너는 겸손하게 내 백성을 대우해야 해, 나는 여전히 내 백성의 하나님이고 절대로 나는 너희 편이 되는 일은 없을거야. 조심해라 그렇지 않고 네 힘인 줄 알고 교만히 행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13) 그리고 내 백성은 잘 들으라. 바벨론도 필요 없고 애굽의 왕도 필요 없다. 블레셋 같은 것은 상대할 것도 못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너의 대적을 죽여 줄 것이다. 가만히 언약만 잡고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네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고 상황도 바꾸어 줄 것이다. 언약궤 하나면 나라도 죽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도, 적군에게 언약을 빼앗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